

# 20~30대 자궁내막암 가파른 증가...의심 증상은 '이것'



자궁의 내막(안쪽 벽)에 암이 생기는 젊은 자궁내막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있다면 자궁내막암을 의심해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사진=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제공)

자궁의 내막(안쪽 벽)에 암이 생기는 젊은 자궁내막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있다면 자궁내막암을 의심해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자궁내막암 환자는 2018년 1만9975명에서 2022년 2만4787명으로 약 5000명 가량 늘었다. 특히 자궁내막암은 주로 50대 이상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20~30대 자궁내막암 환자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 2030 자궁내막암 환자, 20년 새 3배 늘어 비정상 질 출혈 있다면 즉시 병원 찾아야

새 3배 이상 늘었다.

자궁내막은 월경으로 인해 약 한 달 주기로 두꺼워졌다 얇아지기를 반복한다. 자궁내막암은 이 자궁내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과 함께 여성의 4대 암으로 불릴 만큼 여성에게 흔하다.

자궁내막암은 여성호르몬이라 불리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에는 비만도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비만이 자궁내막암 발생과 연관돼 있다고 발표했다. 박성택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실제 자궁내막암 환자 중 비만한 환자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당뇨가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임기 여성에서 5~10%의 유병률을 보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자궁내막암이 발생하기 쉽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황체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아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해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비정상적인 질 출혈은 자궁내막암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다. 특히 폐경 이후 질 출혈이 있다면 자궁내막암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바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 출혈이 있는 경우, 월경 주기가 과도하게 불규칙할 경우, 월경 기간이 너무 길거나 양이 많을 경우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복부 통증이나 골반 통증이 이어진다면 산부인과에서 질 초음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자궁내막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등을 통해 치료한다. 초기의 젊은 환자일 경우 자궁 내막을 긁어낸 후 호르몬제를 사용해 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자궁내막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 수술을 통해 자궁을 절제하기도 한다.

다만 비만한 환자의 경우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로부터 수술할 자궁까지의 거리가 멀어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절개 후에도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또 절개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이 경우 로봇 수술을 활용할 수 있다. 로봇 수술은 다빈치 Xi 등 로봇 수술기를 활용해 하는 수술로, 인체에 약 1cm의 구멍을 내고 로봇팔을 삽입해 시행한다. 내시경과 카메라가 달린 얇은 로봇팔이 골반 깊은 곳까지 도달해 환부를 촬영하고, 집도의는 3차원(3D) 영상으로 환부를 확인하며 수술한다.

박 교수는 "비만한 자궁내막암 환자는 대부분 로봇 수술로 치료하고 있다"며 "절개 범위가 작은 로봇 수술이 통증과 관련 합병증도 덜하고 회복도 빠를 뿐 아니라 흉터도 작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자궁내막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되는 등 예후(경과)가 좋지만 3기 이상에서는 완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재발률도 높아져 정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뉴스1

## 중년 이후 류머티즘 환자, 파킨슨병 위험 더 높다...“최대 95% 증가”

중년 이후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류머티즘 관절염이 파킨슨병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가 나왔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체내 면역체계 이상으로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 관절 내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절이 점차 파괴되는 질환이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32만 8080명을 평균 4.3년 추적 관찰한 결과, 류머티즘 관절염과 파킨슨병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5만 4680명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는 27만 3400명(대조군) 간 파킨슨병 발생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군의 파킨슨병 발생 위험은 대조군 보다 74% 높았다.

신 교수는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서 파킨슨병의 위험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운동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시에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머티즘 인자가 양성으로 나온 '혈청 양성형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대조군 보다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2배에 가까운 95%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류머티즘 환자의 약 80%가 혈청 양성 환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전체 환자 5만 4680명 중 혈청 양성인 환자가 3만 9010명으로 71.3%에 달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상당수가 파킨슨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류머티즘 관절염에서 파킨슨병의 위험도가 증가한 것은 류머티즘 관절염에서 보일 수 있는 신경 염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군은 파킨슨병 위험이 높지 않게 나타난 만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1

## 엠펙스 고위험군 예방접종 예약 2336명...932명 백신 맞았다

국내 엠펙스 고위험군 예방접종 예약자 수가 2336명, 접종자 수는 932명으로 나타났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엠펙스 접종 예약자는 총 2336명이다. 당국은 엠펙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예방접종 예약, 8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예약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1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86명, 기타 333명이다. 당국은 수도권 접종 희망자 수를 고려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접종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날까지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93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내 엠펙스 누적 환자는 75명이며 이달 2주차(7~13일) 환자는 15명이다. 이는 직전 주 16명보다 1명 감소한 수치다.

주간 신규 환자 중 9명은 서울에 거주했고 4명은 경기, 부산과 세종에서 각각 2명씩 발생했다.

15명 중 13명은 내국인이고 2명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0건, 의료기관 신고가 5건이었다. 15명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당국이 지난 10일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위험도는 '낮음', 고위험집단에서는 '중간'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엠펙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했지만 국내 위기경보수준을 '주의' 단계로 유지 중이다.

질병청은 "진단, 치료제 확보 및 공급, 백신 접종 확대, 전담병상 지정까지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거나 콜센터 1339로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1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품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